

한국수자원공사, 룩셈부르크와 기후변화 대응·디지털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 안민기 기자 | ☎ 승인 2026.06.01 15:41 | □ 11면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사진 왼쪽)과 올리비에 기용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LIST) 원장이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위성·디지털 물관리 분야의 유럽 국제협력 구축을 위해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LIST)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 및 물관리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유럽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반을 확

대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위성 기반 홍수·가뭄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물관리 △호라이즌 유럽 공동 참여 △연구자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첨단 물관리 기술에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의 기후변화 모니터링, AI 데이터 융합 기술을 결합해 물분야 기후위기 대응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앞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공동 참여와 더불어 유럽 내 다양한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물분야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민기 기자 mingi16422@daejonilbo.com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수자원공사, 룩셈부르크 연구원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협약 체결

- 수자원위성·디지털 물관리 분야 유럽 국제협력 강화
-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참여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대
- AI·IoT 기반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기술 공동 개발 추진

박재동 기자 baksc@naver.com

등록 2026.06.02 10:52:52



[미래세종일보] 박재동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5월 27일 룩셈부르크에서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LIST)과 수자원위성 및 디지털 물관리 분야의 유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위성 기반 홍수·가뭄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물관리,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공동 참여, 연구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축적한 수자원위성, 디지털트윈 등 첨단 물관리 기술에 LIST의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AI 데이터 융합 역량을 접목해 물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은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융합형 연구를 수행하는 현지 대표 공공 연구기관으로, AI와 우주, 환경 등 전략 분야에서 2025년 말 기준 500여 건의 프로젝트와 다양한 국제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럽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본격화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 전 세계 기술 선진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은 지난해 10월 자크 플리스(Jacques Flies) 대사가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의 화성 AI 정수장,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수자원위성센터 등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후 협약 체결까지 현지 협력과 기관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 독일항공우주센터(DLR)와의 위성 분야 협력에 이어, 유럽연합 연구혁신총국, 덴마크 기상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유럽 내 연구개발(R&D)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이번 협약이 기후위기 시대의 디지털 전환 가속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체계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공동 참여와 더불어 유럽 내 다양한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물분야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토뉴스]수자원공사, 룩셈부르크 LIST와 업무협약 체결

✎ 박원식 기자 | ⌚ 승인 2026.06.01 11:17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달 27일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LIST)과 수자원위성·디지털 물관리 분야 유럽 국제협력-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유럽 국제협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유럽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위성 기반 홍수-가뭄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물관리,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HE) 공동 참여, 연구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부장(왼쪽)과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LIST) 올리비에 기욤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자원공사 제공)

수공, 유럽 국제협력 파트너십 확대 시금석 마련

윤 선병규 기자 | 승인 2026.06.01 09:05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과 수자원위성·디지털 물관리 분야 협력 나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수자원공사가 유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금석을 마련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최근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LIST)과 수자원위성·디지털 물관리 분야 유럽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 및 물관리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유럽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MOU를 토대로 양측은 위성 기반 홍수·가뭄 모니터링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물관리,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HE) 공동 참여, 연구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룩셈부르크를 대표하는 공공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연구원(LIST)은 인공지능과 우주, 환경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수백건의 프로젝트와 다양한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시대 디지털 전환 가속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인 국제 공동연구 체계로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구자영 수공 기획부문장(사진 왼쪽)과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 올리비에 기용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병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룩셈부르크와 수자원위성·디지털 물관리 협력 확대

기사입력시간 : 2026/06/01 [14:13:00]

백지선 기자



▲ (사진=한국수자원공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난달 27일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LIST)과 수자원위성·디지털 물관리 분야의 유럽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겨냥한 유럽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양측은 위성 기반 홍수·가뭄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물관리,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공동 참여, 연구자 교류 등에서 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의 최대 규모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LIST는 자연과학과 공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연구를 수행하는 룩셈부르크의 공공 연구기관이다. AI, 우주, 환경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말 기준 500여 건의 프로젝트와 다양한 국제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위성과 디지털트윈 등 첨단 물관리 기술에 LIST의 기후변화 모니터링, AI 데이터 융합 기술을 결합해 물 분야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협력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에는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의 역할도 있었다.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는 지난해 10월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의 화성 AI 정수장,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수자원위성센터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대사관은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룩셈부르크 연구기관, 산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위성 분야 협약을 맺은 독일항공우주센터(DLR)에 더해 유럽연합 연구혁신총국, 덴마크 기상연구소와도 협력을 강화해 유럽 현지 네트워크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국제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공동 참여를 통해 글로벌 물 분야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행보 '주목'...베트남, 유럽과 협력 네트워크 확대

✎ 박봉민 기자 | ⓒ 승인 2026.06.16 09:57

하이퐁시와 협력으로 베트남 전역 물사업 확장
룩셈부르크와 유럽 첨단 기술 분야 연구 협력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한강유역본부에서 베트남 하이퐁시 고위급 대표단과 물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베트남 전역으로 물사업을 확장하고, 룩셈부르크와 유럽 첨단 기술 분야 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것.

1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한강유역본부에서 베트남 하이퐁시(市) 고위급 대표단과 물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투자 거점이자 공급망 협력의 핵심 국가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북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노이, 호찌민에 이은 베트남의 대표 항만도시이자 산업·물류 거점이다. 현재 여의도 면적(약 290ha)의 45배(총 1만 3000ha)에 달하는 46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산업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산업화에는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과 체계적인 폐수 처리가 필수적이며 해안 도시 특성상 기후변화로 인한 염해와 도시침수 등에 대비한 물안보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하이퐁시는 자유무역지대 등의 안정적 조성을 뒷받침할 물관리 전반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베트남 물 시장에서 남부부터 북부까지 단계적으로 다져온 성과의 연장선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이퐁시 경제특구 내 물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격차 기술(인공지능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등) 도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연구 협력 ▲상수도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 물관리 협력 ▲물인프라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 연계·지원 등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의미가 매우 큰 국가"라면서 "하이퐁시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산업 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의 동반성장과 글로벌 물산업 협력 생태계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27일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과 수자원위성·디지털 물관리 분야 유럽 국제 협력·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또한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27일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과 수자원위성·디지털 물관리 분야 유럽 국제협력·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유럽 국제협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유럽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은 ▲위성 기반 홍수·가뭄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물관리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유럽연합의 연구·혁신 지원 최대 규모 프로그램) 공동 참여 ▲연구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유럽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본격 추진, 국제 공동연구의 최일선에서 전 세계 기술강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과 물관리 국제 공동연구 협약

윤 이충진 기자 | 승인 2026.06.01 15:42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LIST)과 수자원 위성·디지털 물관리 분야 국제 공동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7일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LIST와 유럽 국제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담긴 협력 의제는 △위성 기반 홍수·가뭄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물관리 △호라이즌 유럽 공동 참여 △연구자 교류 등이다. 양 기관은 수자원공사의 디지털트윈 물관리 기술과 LIST의 기후변화 모니터링·AI 데이터 융합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LIST는 룩셈부르크의 공공 연구기관으로, 자연과학과 공학 융합 연구를 수행한다. AI·우주·환경을 전략 분야로 삼고 있으며 500여 건의 국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에는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관이 가교 역할을 했다.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는 지난해 10월 경제사절단과 함께 수자원공사의 화성 AI 정수장,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수자원 위성센터 등을 방문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력을 발판으로 EU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2024년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와 위성 분야 협력 협약을 맺은 데 이어, 향후 EU 연구혁신총국·덴마크 기상연구소 등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구상이

다.

구자영 수자원공사 기획 부문장은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공동 참여와 유럽 연구기관·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물 분야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충진 기자

HOME 뉴스 수자원/환경

水公,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과 연구협력 확대

유럽 최대 혁신기술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공동 참여 등

민지아 기자 | 승인 2026.06.01 10:27



업무협약식 단체사진. 사진=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7일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LIST)과 수자원위성·디지털 물관리 분야 유럽 국제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위성 기반 홍수가뭍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물관리 ▲호라이즌 유럽 공동 참여 ▲ 연구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룩셈부르크를 대표하는 공공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연구원(LIST)은 자연과학과 공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역량을 쌓아 온 수자원위성과 디지털트윈 등 첨단 물관리 기술에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원의 기후변화 모니터링, AI 데이터 융합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물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자크 플리스(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는 지난해 10월 자국 경제사절단과 함께 수자원공사의 화성 AI 정수장과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수자원위성센터 등을 둘러보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논의 한 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4년 위성 분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독일항공우주센터(DLR)에 이어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유럽연합 연구혁신총국, 덴마크 기상연구소 등과도 협력을 강화해 유럽 현지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며 글로벌 물분야 연구개발(R&D) 협력 허브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앞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공동 참여와 더불어 유럽 내 다양한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물분야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지아 기자 jiamee@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